

“고급화·이색상품 한자리… ‘취향 맞춤’ 선물 준비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예년 대비 다소 짧은 편이다. 연휴 길이가 짧아지면서 긴 해외여행이나 장기 휴양보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오붓하고 단란한 시간을 나누며 명절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짧고 집약적인 연휴 특성에 따라 명절 선물을 미리, 알차게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유통업계는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물가 기조 속 부담을 낮춘 실속형 ‘가성비’ 세트부터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MZ세대의 ‘가치소비’ 맞춤형 상품, 명인 협업 및 한정판 중심의 ‘프리미엄’ 세트까지 스펙트럼을 대폭 넓혔다. 사전예약과 유통 채널별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이고 정성 어린 선물을 조기에 수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추석, 실속 있게 준비한 명절 선물과 함께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풍성하고 뜻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coul.co.kr



먹거리부터 리빙까지 프리미엄 강화

현대백화점

1++ 한우·고당도 과일 고급 식품군 확대
바카라·샤넬 등 리빙·뷰티 100여종 마련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백화점 전 점포 식품관과 무역센터점 선물 큐레이션 편집숍 ‘더현대 기프트(The Hyundai Gift)’,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Hi)’에서 ‘2026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본판매에서는 한우와 굴비, 청과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에 더해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뷰티리빙 등 비식품 상품군을 확대했다. 전체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인 1600여 종이다.

한우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10% 늘린 12만 세트를 준비했다. 필요할 때마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한 ‘소담 세트’ 라인업도 강화했다. 올 추석에는 처음으로 1++등급 한우와 12가지 특수부위를 200g 단위로 소포장한 상품을 선보인다. 구이용 한우로 구성된 ‘현대명품 한우 소담 매(梅)’와 구이용 및 양지 국거리로 구성된 ‘현대명품 한우 소담 죽(竹)’ 등이 대표 상품이다.

청과 선물세트는 당도와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 프리미엄 과일 디저트 수요를 반영해 ‘H스위트 고당도 복숭아 세트’를 처음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당도 15브릭스(brix) 이상인 복숭아로 구성했다. 일반 복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위치한 선물 큐레이션 편집숍 ‘더현대 기프트(The Hyundai Gift)’ 매장에서 직원들이 명절 프리미엄 리빙 선물 세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숭아의 평균 당도는 10~12브릭스 수준이다. 리빙·뷰티 상품도 추석 선물 라인업에 포함했다. 프랑스 크리스털 브랜드 ‘바카라’,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 뷰티 브랜드 ‘샤넬 뷰티’ 등을 포함해 100여 종의 리빙·뷰티 상품을 마련했다. 럭셔리 테이블웨어에서는 바카라 ‘크리스털 텀블러’, 크리스토폴 ‘6인조 컷러리 세트’, 베르나르도 ‘에퀴메 화이트 샬러드 플레이트 세트’ 등을 판매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선물 추천 서비스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전복·굴비에 와인까지 상품군 확대

이마트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상품권 혜택
사전예약 인기 나주배도 24일까지 선택

이마트가 24일까지 2026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본판매에서는 과일·축산·수산·가공·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행사카드 결제 또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일부 행사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도 제공한다.

본 판매에 맞춰 와인 상품도 추가했다. 칠레산 와인 2종으로 구성된 ‘몬테 슈프리모 그란리제르바 세트’와 프랑스산 와인 2종으로 구성된 ‘샤또 레 무아 나르+샤또 로브 세트’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일부 와인 품목은 2세트 이상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일에서는 사전예약 기간 누적 매출 1위를 기록한 배 선물세트를 본 판매에서도 선보인다. ‘프리미엄 나주배’는 배 5kg을 8~9입으로 구성했다.

축산에서는 1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이마트는 과일·축산·수산·가공·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마트

‘한우 냉장 2호 세트’는 한우 1등급 등심구이와 국거리 등 총 2kg으로 구성했다. ‘피코크 작경매 암소 한우 풍족 세트’는 1+등급 등심구이·채끝구이·국거리·불고기를 각각 500g씩 담았다.

수산에서는 전복과 굴비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이마트 전복 세트 특대’는 국산 전복 15마리로 구성했으며, ‘특선 영광 잠굴비 2호’는 국산 잠굴비 10마리를 담았다.

/김서현 기자

숙성·발효로 빛은 ‘시간의 가치’

롯데백화점

360시간 한우·30년 이상 위스키 한정 판매
200년 씨간장·식품명인 장류 등 이색 구성

롯데백화점이 올 추석 숙성과 발효를 앞세운 ‘타임 프리미엄(Time Premium)’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한우와 주류, 그로서리 등 선물세트 전반에 걸쳐 장기간 숙성하거나 전통 발효 방식을 활용한 상품을 마련했다.

축산에서는 360시간의 숙성 노하우를 적용한 ‘숙성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숙성육 전문 다이닝 ‘숙수도가’와 협업해 ‘숙수도가 숙성 등심·안심 정찬’과 ‘숙수도가 숙성 등심·채끝 정찬’ 2종을 출시했다.

돈육 선물세트에는 특수 숙성 기법을 적용했다. 숙성 흑돼지 전문점 ‘숙성도’와 협업한 ‘숙성도 흑돼지’는 국립축산과학원이 25년간 연구해 복원한 ‘우리 흑돈’의 오겹살과 목살, 뼈등심 부위를 168시간 동안 웨이징(Wet Aging)한 상품이다.

30년 이상 장기 숙성한 고연산 위스키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아드벡 더 어비스’는 1989년 증류한 싱글 몰트 위스키 원액을 프렌치 오크통에서 추가 숙성한 제품으로, 만화 아티스트 트레이드 무어가



전남 나주 박경중 종가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비결을 담은 ‘200년 씨간장’ 기프트를 선보이고 있는 모델의 모습. /롯데쇼핑

패키지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조니워커 40년 마스터스 루비 리저브’, ‘맥켈란 40년 레드컬렉션’ 등을 선보인다.

전통장 선물세트는 명가 및 식품 명인과 협업해 장기간 이어져 온 발효 방식을 적용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롯데백화점 한식 브랜드 ‘남파고택’에서는 전남 나주 박경중 종가에서 200년 동안 대를 이어 덧장을 부어 완성한 ‘200년 씨간장 기프트’를 판매한다. 기순도, 성명례, 조정숙 등 식품 명인과 협업한 된장과 고추장, 참기름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전통주·한우 강세에 취향형 상품 인기

롯데온

전통주 판매 7배 증가·한우도 20% 늘어
간식·혼합과일 등 이색 품목 주문도 증가

롯데온이 지난 9일까지 추석 행사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통적인 명절 선물과 함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주 선물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주 이강주, 안동소주, 고려개국주, 문배주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전통주 선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늘었다.

추석 기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류도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기화병가 에그롤, 그레이نس 셀렉션 쿠키세트, 잘보리빵 선물세트 등이 대표적이다. 김부각 브랜드 ‘바삭’이 손종원 셰프와 협업한 상품도 주문량이 증가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에 대한 수요도 이어졌다. 청정원, 사조, CJ제일제당, 애경, LG생활건강 등의 식품·생활용품 선물세트가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

한우 선물세트 판매량도 증가했다. 온도씨 한우를 비롯해 우매중, 대한사람대안으로, 손수맛찬 등의 한우 상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과일 선물세트에서는 배와 사과에 망고, 멜론 등



롯데온이 오는 20일까지 ‘온마음 추석’ 행사를 연다. /롯데쇼핑

을 함께 구성한 혼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밖에도 딸가레호 올리브유, 하루견과 세트, 오설록 티 컬렉션 등 품목을 다양화했다. 롯데온은 추석 행사 기간 할인 쿠폰과 상품별 엘포인트(L.POINT)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대천김 선물세트, 사미헌 한끼갈비탕, 과일꾼 사과·배 혼합 세트 등을 판매하며 한우 상품으로는 청풍명월과 동양축산 선물세트 등을 마련했다.

한편, 롯데온은 오는 20일까지 ‘온마음 추석’ 행사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